

사회적 책임은 한국전력의 핵심가치 중 하나다. 한전은 이를 'KEPCO Way' 라고 부른다. 한전은 지난 4월 공기업 최초로 '전력노조의 사회적 책임(USR) 헌장' 을 선포, 기업만이 아니라 노조도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부합하는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만큼 한전의 사회적 공헌활동은 자발성이 강하다. 사회적 공헌활동의 중심은 2004년 5월 '세상에 빛을 이웃에 사랑을'이라는 슬로건 아래 창단한 '한전 사회봉사단' 이다.

봉사단 출범을 계기로 산발적으로 추진해 오던 봉사활동을 조직화하여 체계화 하고 사회공헌활동도 전문화하는 계기가 됐다. 봉사단체가 중심이 되는 만큼 사회 소외층과의 경험과 마음을 나누는 인간적 교감을 강조하고 있다.

한전은 전국에 소재한 사업소와 283개 지역아동센터간 1 대 1 자매결연을 통해 멘토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주로 학력부진 아동 특별지도·숙제지도·독서지도· 전기안전교육·IT교육 등 학습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노사 합동으로 한빛나눔 각막기증 캠페인을 펼쳐 전 직원의 42.2%인 8,138명이 참여하여 국내 단일기관 최다 기록을 달성하기도 했다. 또한 국내외 저소득 시각 장애인들에게 나눔의 빛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50명에게 개안수술을 제공하는 'Eye Love Project' 사업을 완료했다. '사랑의 에너지 기금'을 모금, 전기요금 미납으로 전기공급이 제한된 저소득 계층에게 체납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2003년 이후 총 1만2164가구(15억4000만 원)에 희망의 빛을 밝혀 주었다.

한국전력, 저소득층에 체납 전기요금 지원



한국남동발전(사장 장도수)이 지난달 20일 서울 그랜드 힐튼호텔에서 열린 '2011 제19회 국제 VE 컨퍼런스' 에서 3년 연속으로 VE 대상을 수상했다.

VE(Value Engineering)란 원가절감과 제품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제품 개발에서부터 설계, 생산, 유통, 서비스 등 모든 경영활동의 변화를 추구하는 경영 기법으로 가치공학(가치경영 또는 가치분석) 등으로 불려지고 있다.

남동발전, 3년 연속 '가치경영' 대상 수상



남동발전은 공기업 최초 소사장제 도입을 통한 재무성과 중심의 자율책임경영의 정착과 전사적자원관리의 하나인 코피스(KOPIS) 중심의 시스템 경영체제 구축에 힘입어 3년 연속 VE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효과적인 VE활동으로 영흥화력 5, 6호기 건설원가 120억 원을 절감한 실적을 토대로 영흥화력 건설처 황상연 처장을 비롯한 3명이 개인상을 수상했다.

중부발전, 국내 최초 대용량 발전소 이전 건설

한국중부발전(사장 남인석)이 현재 시행 중인 인천복합 3호기 건설사업과 관련해 지난달 3일자로 자사 산하 보령복합 4호기를 발전정지하고 철거작업에 착수했다.

이 사업은 지난 1978년 준공돼 30년간 가동해온 인천화력발전 기력발전기 3, 4호기(325MW×2기)를 폐지하고 동일 부지에 보령복합 4호기(450MW)를 이전, 건설하는 국내 최초이자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프로젝트다.

이 사업은 특히 국내 최초로 시행되는 것으로 발전플랜트 건설시장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천복합 3호기 건설 사업은 지난달에 착공해 내년 12월 준공될 예정이다.

인천복합 3호기 건설사업 특징은 보령복합 4호기를 단순히 이전하는 사업이 아닌 최신 기술을 대폭 보강해 고효율의 발전설비를 재탄생시키는 것으로 전력생산 후 버려지는 폐열을 이용해 인근 지역에 난방열을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한 청정연료 사용과 국내 복합화력발전소 최초 탈질설비를 적용해 질소산화물(NOx) 발생을 최소화하고, 인근 주거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전면적인 발전소 미관 개선을 통해 친환경 발전소로 거듭나게 됨은 물론 발전설비를 재활용함으로써 외자기자재분 2500억 원을 절감하는 효과도 가져올 전망이다.

한국서부발전(사장 김문덕)이 1조 원을 투입해 평택에 복합화력발전소를 짓는다.
이는 전국적으로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지만 공급 능력은 따라가지 못해 3년 내에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전력난을 대비하는 것이다.

지난달 6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한국서부발전은 총 1조360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900MW급 평택복합화력 2단계 건설계획을 지난 8월 말 확정했다. 2014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신규 발전소 용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서부발전은 조만간 설계기술용역 계약을 맺고, 11월에는 국내 건설사를 대상으로 입찰을 거쳐 주기기과 기자재 구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번 발전소 주설비는 가스터빈 발전기 2기, 스팀터빈 발전기 1기, 배열회수 보일러로 구성된다. 서부발전은 최신 설비채택을 통해 발전 효율을 국내 최고 수준인 55.9%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총 사업비는 기자재 구매 6,200억 원, 시공비 2,600억 원, 간접비와 건설이자 1,560억 원 등이다.

한국남부발전(사장 남호기)은 지난달 8일 제주특별자치도 한경면 신창리 현지에서 우근민 도지사 및 협력사 주요인사,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풍력센터 준공식'을 가졌다.

국제풍력센터는 최근 풍력발전 설비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안정적 설비운영을 위한 감시기능 강화는 물론 설비별로 산재돼 있던 기존의 풍력발전 시스템 통합 및 최첨단 설비도입을 통한 중앙 집중형 원격감시시스템 구축으로 설비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남부발전은 국제풍력센터에 중앙 집중형 최첨단 원격감시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국내 풍력발전 설비는 물론 향후 해외에 건설될 설비까지 통합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시스템을 구축했다.

전력난 대비 새 화력발전소... 서부발전, 1조 원 투입

남부발전, 제주 한경면에 '국제풍력센터' 준공



한전KPS, 인도 와디 화력발전소 운전 및 정비사업 수주

- 인도 현지에서 ACC사와 계약 체결
- 공사금액 350억 여원, 5년 4개월 공사 수행

한전KPS(사장 태성은)가 인도 최대 시멘트 기업인 ACC(Associated Cement Companies Limited)사와 인도 남부 카르나타카(Karnataka)주에 위치한 와디(WADI) 화력발전소의 운전 및 정비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인도 GMR O&M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래 인도에서 7번째 사업소를 개설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한전KPS 강재열 신성장사업본부장은 지난달 21일 인도 현지에서 ACC사 샷티 아로라(Mr. Shakti Arora) 구매본부장을 만나 총 공사금액 350억 여원의 와디 화력발전소 운전 및 정비사업에 관한 최종계약에 서명했다.

이번 계약이 성사됨에 따라 한전KPS는 앞으로 5년 4개월 동안 설비용량 125MW(25MW×5기)의 와디 화력발전소에 대한 운전 및 고품질 책임정비를 제공하게 된다.

WADI Plant는 ACC사의 23개 사업장 중 하나로 1년 생산 능력이 약 260만 톤으로 ACC사 전체 시멘트 생산량의 약 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하여 한전KPS가 좋은 성과를 보여준다면 다른 사업장으로의 진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삼성물산, 5억8700만弗 火電 수주... SK건설은 35억弗 공사 참여

국내 건설사들이 대규모 해외 플랜트 공사를 잇따라 따냈다.

삼성물산은 지난달 19일 아랍에미리트(UAE) 알루미늄 회사인 에말이 발주한 5억8700만 달러(약 6,590억 원) 규모의 알루미늄 제련공장용 복합화력발전소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UAE 타월라 산업단지에 들어설 에말의 2단계 알루미늄 제련공장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1,023MW급 복합화력발전소를 짓는 공사다. 삼성물산은 설계 구매 시공 시운전 등을 일괄적으로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공사 기간은 2014년 6월까지 총 33개월이다.

한편 SK건설은 이집트에서 미국 엔지니어링 회사인 쇼그룹과 함께 35억 달러 (약 3조 9,300억 원) 규모의 에틸렌 석유화학단지를 짓는 공사에 참여한다. SK건설은 발주사인 이집트 카본홀딩스와 공동개발협약을 맺었다.

SK건설과 쇼그룹은 '설계·구매·시공에 관한 조인트벤처 설립협약서'에 서명했으나 각자의 참여 지분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프로젝트는 이집트 수에즈만 북서쪽 아인쇼크나 공업단지에 연간 생산량 135만 톤 규모의 에틸렌 석유화학단지를 짓는 공사로, 내년 착공에 돌입하여 2016년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부가가치가 높은 해양설비로 각광을 받고 있는 드릴십(Drillship, 심해시추선)에 처음으로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국산 엔진이 탑재된다.

현대중공업(회장 민계식)은 다이아몬드사, 노블드릴링사 등 세계적인 시추회사로부터 드릴십에 들어갈 '힘센엔진(HiMSEN)' 총 98기를 1억5000만 달러에 수주했다고 밝혔다.

힘센엔진은 현대중공업이 지난 2000년 국내 최초이자 유일하게 독자 개발에 성공한 엔진으로 독일의 만(MDT), 핀란드 바르질라(Wartsila), 미국 캐터필러(Caterpillar) 등 외국회사들의 제품이 독점하고 있는 드릴십 엔진 시장에 국산 제품이 진출하게 됐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번에 수주한 힘센엔진은 오는 2012년 상반기부터 현대중공업이 건조하게 될 9척을 포함, 총 15척의 드릴십에 순차적으로 탑재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의 힘센엔진은 지난 2001년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가 불과 10년 만인 2011년 2월 누계생산 5,000대를 달성하고, 선박용 중형엔진 시장의 35%를 점유하는 등 단기간 내 세계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다.

현대중, 힘센엔진 드릴십 시장 첫 진출



LS전선—한진 '전기저항 0' 송전망 만든다



LS전선(대표이사 구자열)이 한국전력(사장 김중겸)과 함께 차세대 초전도 송전망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에 착수했다.

LS전선은 지식경제부의 '스마트그리드 분야: 초전도 전력기기 및 적용기술 개발'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됨에 따라 한국전력, 전기연구원, 전력연구원 등과 오는 2016년까지 차세대 초전도 송전망 기술개발을 수행한다.

초전도 전선은 소위 '꿈의 전선'으로 불린다. 전기저항이 '0'인 초전도체를 사용해 많은 양의 전기를 손실 없이 보낼 수 있고 동급 일반 전력선에 비해 크기는 작으면서도 5~10배의 송전 효과가 있다. 국내에선 LS전선이 최초로 개발했다.

이번에 LS전선이 수행할 국책과제는 초전도 전선 및 관련 기자재들을 실제 송전 계통에 적용하는 것이다. 아울러 운영표준, 유지보수 및 엔지니어링 기술 확보도 목표로 하고 있다.

포스코파워, 베트남서 석탄화력발전소 착공

● 1,120MW 규모 무연탄 화력발전... 2015년 상업운전

포스코파워가 베트남 최초의 석탄 화력 민자발전(IPP) 프로젝트인 몽중Ⅱ(Mong Duong II) 석탄화력발전소를 착공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조성식 포스코파워 사장과 폴 한라한 AES 회장 등 관계자 100여명은 베트남 북부 팡닌주(峴)에 위치한 몽중Ⅱ 석탄화력발전소 부지에서 착공식을 가졌다.

몽중Ⅱ 석탄화력발전소는 1,120MW(560MW×2기) 규모의 무연탄 화력발전으로, 2015년 7월부터 상업운전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 발전소는 민간발전사가 25년간 운영한 후 베트남 정부에 무상 양도되는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포스코파워는 글로벌 에너지회사인 AES 코퍼레이션과 함께 건설관리 및 발전소 운영, 유지 및 보수(O&M) 등을 맡게됐다. 포스코파워는 이번에 착공한 베트남 석탄화력발전소와 지난달 8일 착공한 인도네시아 부생발전소 건설 등을 통해 동남아 발전시장을 발판으로 점차 그 영역을 확대, 2020년까지 해외발전용량 13GW의 글로벌 민간발전사로 도약할 계획이다. KEA